

음악·영상·검색까지 번진 'AI 슬롭'… 악의적 정보와 곡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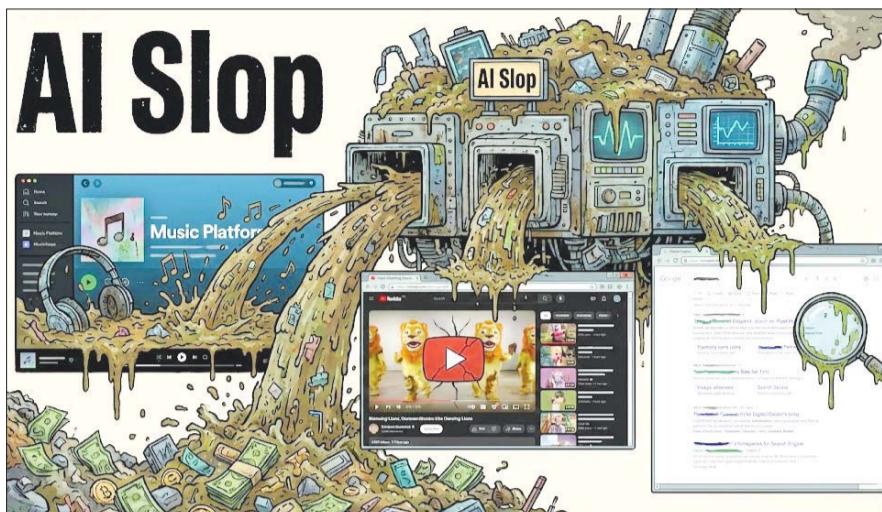
〈검증·맥락 없이 AI가 생산한 저품질 콘텐츠〉

유튜브 뮤직, AI 생성음악 과도 노출
韓, AI 슬롭 영상분야 '세계 1위'
독버섯 요리 레시피 추천 논란도

전문성·비용 없이 AI 슬롭 무한증식
자율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대응해야

검증 없이 쏟아지는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이를바 'AI 슬롭(AI Slop)'이 음악·영상·검색 영역 전반으로 확산되며 플랫폼 생태계의 신뢰도를 흔들고 있다. 알고리즘 노출을 노린 저품질 콘텐츠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용자 피로를 넘어 정보 왜곡과 안전 문제까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I 슬롭은 명확한 검증이나 맥락 없이 대량 생산된 AI 콘텐츠를 뜻한다. 이는 정보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검색 및 추천 알고리즘을 교란해 인터넷 서비스 전반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다. 그림, 음악, 영상은 물론 블로그 포스팅까지 그 범위도 급속도로 확장되는 추세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저질 콘텐츠인 이를바 'AI 슬롭(AI Slop)'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최근 IT 매체 테크레이더는 스포티파이에서 시작된 AI 슬롭 논란이 유튜브 뮤직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동 생성 플레이리스트와 뉴스 피드에 AI 생성 음악이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이용자는 추천 콘텐츠의 상당수가 AI 음악으로 채워졌다 고 주장한다. 이용자들은 '관심 없음'이

나 '싫어요' 기능이 개별 곡에만 적용되어, 쏟아지는 AI 슬롭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AI 슬롭의 수익성도 확인됐다. 영상 편집 플랫폼 '카프링'이 국가별 상위 100개 유튜브 채널 1만 500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78개 채널이 오로지 AI 슬롭 영상만을 송출하고 있었다. 이들 채널의 합계 조회수는 630억 회, 구독자

수는 2억 2100만 명에 달하며 연간 약 1억 1700만 달러(약 1700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AI 슬롭 영상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 기반 상위 11개 AI 슬롭 채널의 합계 조회수는 84억 5000만 회로, 국가별 기준 세계 1위다. 대표적 채널인 '3분 지혜'는 조회수 20억 회를 기록하며 전 세계 슬롭 채널 중 2위에 올랐다. 연 수익은 약 403만 달러(약 58억 원)로 추정된다. 해당 채널은 사자 떼의 공격 속에서 브레이크댄스를 추는 등 맥락 없는 자극적 영상을 무분별하게 업로드하고 있다.

단순한 괴로감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지난해 네이버 블로그에는 독우산광대버섯, 화경버섯 등 치명적인 독버섯을 식재료로 추천하는 AI 생성 레시피가 올라와 논란이 됐다. 더 큰 문제는 네이버의 AI 검색 시스템인 'AI 브리핑'이 이를 검증 없이 학습해 최근까지도 조리법을 추천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해당 결과를 삭제했으며, 저품질 문서 탐지

기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병호 고려대학교 AI연구소 교수는 이런 현상을 기술 발전과 자본 논리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는 기획, 촬영, 편집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지만, 이제는 전문성이 없어도 비용 없이 누구나 몇 분 만에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AI 슬롭의 무한 증식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슬롭 이코노미(Slop-Economic)이라는 말을 제시했다. 그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트래픽이 수익이기에 콘텐츠가 쏟아지는 것을 막을 유인이 적다. 제작자와 플랫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대량의 AI 콘텐츠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단순히 즐기는 '엔터테인먼트형 슬롭'과 홀로코스트 왜곡이나 가짜 뉴스 같은 '악의적 정보 왜곡형 슬롭'을 구분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팩트체크를 담당할 '자율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팀네이버, 국내 최대 AI 컴퓨팅 클러스터 구축

GPU B200 블랙웰 4000장 규모
AI 학습기간, 18개월→1.5개월로 단축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 속도

팀네이버가 인공지능(AI) 주권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팀네이버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B200 블랙웰 4000장 규모를 기반으로 국내 최대 수준의 AI 컴퓨팅 클러스터 구축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팀네이버는 글로벌 수준의 연산 자원을 확보하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와 AI 기술의 서비스·산업 적용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

팀네이버는 단순한 GPU 도입을 넘어, 대규모 GPU 자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클러스터링 분야에서 경쟁력을 축적해왔다.

2019년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팅 인프라인 '슈퍼팟(SuperPod)'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한 이후, 초고성능 GPU 클러스터를 직접 설계·운영하며 실증 경험을 쌓아왔다.

이번에 구축한 'B200 4K 클러스터'에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냉각, 전력,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을 집약했다. 대규모 병렬 연산과 초고속 통신을 전제로 설계된 이번 클러스터는 글로벌 텁500 상위권 슈퍼컴퓨터와 비교 가능한 컴퓨팅 규모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인프라 성능 향상은 AI 모델 개발 속도로 직결된다. 팀네이버는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720억 파라미터 규모 학습 시 기존 A100 기반 인프라 2048장으로 약 18개월이 소요되던 학습 기간을 B200 4K 클러스터에서는 약 1.5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내부 시뮬레이션 기준이며, 실제 학습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습 효율이 12배 이상 향상되면서, 팀네이버는 더 많은 실험과 반복 학습을 통해 모델 완성도를 높이고 기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운영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학습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며 AI 연구 전반의 속도와 유연성도 강화됐다.

팀네이버는 이번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음성을 동시에 처리하는 옴니 모델 학습을 대규모로 확장해 글로벌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고, 이를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전략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NC AI, 韓 산업환경 특화 소버린 AI '배키' 공개

10조 톤 규모 기반으로 학습
산업 확산 위한 효율·확장성 강점

NC AI가 대한민국 산업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NC AI는 AX를 기속화할 확장형 멀티 모달 생성 파운데이션 모델 '배키(VAE TKI)'를 8일 공개했다. 배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성과로, 글로벌 빅테크 중심의 AI 생태계 속에서 대한민국 기술 주권을 지키는 소버린 AI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NC AI는 배기를 통해 K-AI 기술력이 글로벌 최상위 수준에 도달했음을 수치로 입증했다. 자체 성능 평가 결과, 배

기 100B 모델은 오픈AI의 GPT-OS, 메타의 라마(Llama) 계열 등 글로벌 SOTA 오픈소스 모델과 비교해 대등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성능을 기록했다.

배기는 대한민국 산업 환경에 특화된 소버린 AI로 설계됐다. 10조 톤 규모의 대규모 코퍼스를 기반으로 학습했으며, 토크나이저 어휘의 20%를 한국어에 할당하고 고어까지 처리 가능한 한글 자모 조합 기능을 적용해 한국어 전문성을 극대화했다. 그 결과 GPT-OSS-120B 시리즈와 동일한 파라미터 급 모델 대비 한국어 주요 벤치마크 3종 평균에서 101% 우세한 성능을 기록했다.

글로벌 성능 지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배기는 메타의 '라마4 스카우트'

' 대비 주요 글로벌 벤치마크 평균에서 약 1.9배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지시 이행 능력에서는 265%, 박사 수준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HLE 영역에서는 137%의 성능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적 맥락 이해뿐 아니라 고난도 업무 수행과 추론 영역에서도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배기의 또 다른 강점은 산업 확산을 위한 효율성과 확장성이다. NCAI는 혼합 전문가 MoE 아키텍처를 적용해 모델 규모를 키우면서도 운영 효율을 높였다. 차세대 어텐션 기술인 MLA와 국소 전역 인터리빙 기법을 결합해 기존 대비 KV 캐시 메모리 사용량을 약 83% 절감했다. /최빛나 기자

'CES 2026'서 경북도·구미시와 맞손

삼성SDS는 7일(현지시간) 미국拉斯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6'에서 경상북도, 구미시와 공동으로 구미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와 김장호 구미시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

삼성SDS는 구미시에 60㎿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는 삼성SDS가 2024년 12월 삼성전자로부터 취득한 옛 삼성전자 구미1 사업장 부지에 들어서며, 2029년 3월 가동을 목표로 한다.

구미 AI 데이터센터는 AI-GPU 중심 서비스 운영에 적합하도록 고전력 IT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로 조성된다. 유연성과 확장성, 신뢰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향후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삼성SDS는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냉각과 전력 인프라 전반에 최신 기술을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2026' 삼성SDS 프라이빗 부스에서 (왼쪽부터) 김장호 구미시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구미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SDS

적용한다. 서버룸에는 공냉식과 수냉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을 도입해, GPU 등 고발열 장비에는 냉수를 직접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발열이 낮은 장비에는 공냉식을 적용함으로써 전력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전력밀도의 랙 운영을 고려해, 향후 초고전력 랙까지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미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CJ기프트카드, 이마트24로 사용처 확대

전국 5700여개 매장서 사용 가능

CJ기프트카드가 이마트24로 사용처를 넓히며 일상 결제 영역 확대에 나섰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일부터 전국 5700여 개 이마트24 매장에서 CJ기프트카드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온오프라인 제휴처에 더해 편의점까지 사용처를 확대한 것으로, 일상 소비 점검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다.

CJ기프트카드는 개인 구매자의 70% 이상이 2030세대인 점을 고려해 활용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이마트24 제휴를 통해 고객은 보다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CJ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CJ기프트카드는 ONE CON을 비롯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네이버쇼핑 등 주요 온라인 채널과 올리브영, CGV, 뚜레쥬르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